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관능미 연구

-영화 「제 5원소」를 중심으로-

변미연⁺ · 이인성^{*}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Voluptuous Beauty Represented on Jean Paul Gaultier's Fashion Design

-Mainly the Movie 「The 5th Element」-

Mi-Yeon Byun⁺ · In-Seong Le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6. 4. 4. 접수, 5. 19 채택)

Abstract

Jean Paul Gaultier, debuted in 1970's and referred to as a bad boy in Paris fashion industry with his abnormal and ingenious ideas such as skirts for men, underwear outfit, etc, is a leading fashion designer. This study may find its meaning from the fact that this study defines how the voluptuous beauty, one of the figurative beauties inherent in Jean Paul Gaultier's design, expresses in the movie costume and understands the world of the designer's fashion to provide a foundation to fashion designers who are looking for a new area where they can actively involve in.

For the study, the 'The Fifth Element (1997)', in which the voluptuous beauty, Jean Paul Gaultier's representative figurative beauty, is fully revealed, and also it is his latest movie he participated in as costume designer, was selected and costume design is analyzed using DVD screen capture program. Also, this study reviewed his design with his collections from 1997 when he was invited to Haute Couture and began to actively perform his works down to date and also referred to numerous materials, fashion magazines, movie magazines, Internet data and etc. From the results of analyzing Jean Paul Gaultier collections, first, the beauty he is pursuing is projected broadly in three types- the voluptuous beauty from clothing innovation, the voluptuous beauty from unpolished nature, the voluptuous beauty from exposure. Second, the movie 「The Fifth Element」 is well revealed the world of Jean Paul Gaultier's art presenting visual amusement and variety of attractions. Finally, the results of analyzing costume by characters say that the clothing innovation and the voluptuous beauty from exposure on Leeloo's costume, the voluptuous beauty from exposure on Korben Dallas's costume, the voluptuous beauty from unpolished nature on Zorg and Ruby Rhod's costumes are well shown respectively.

Key Words: Jean Paul Gaultier(장 폴 고티에), The Fifth Element(제 5원소), Underwear outfit(속옷의 걸옷화), Voluptuous beauty(관능미)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영화는 100여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동안 일반인들에게 많은 패션 아이콘을 안겨 주었다. 주인공들의 설정 이미지며 행동에 이르기 까지 그 영화 속의 배경은 일반인들에게 큰 어필을 하고 있으며, 특히 패션계에서는 더욱 예민한 반응으로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대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영화 의상디자인에 참여하여 컬렉션 못지않은 새로운 패션세계를 보여주고 있음은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과 영화 의상디자인에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를 선정하여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패션세계-관능미를 중심으로 규명 하고자 한다. 그는 1970년대에 등장하여 파리 패션계에 등장한 패션계의 악동으로 불리며 보통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기발한 아이디어-남성의 스커트 착용, 속옷의 겉옷화 등-로 패션디자인을 주도하고 있는 디자이너이기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로 꼽힌다. 이러한 배경으로 학계에서는 장 폴 고티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임소영(2003)은 장 폴 고티에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조형미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영옥(2000)은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상호 텍스트성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장 폴 고티에의 컬렉션 및 디자인을 바탕으로 내적미를 도출하는 연구였음에 착안하였기에, 본 연구는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의 가장 두드러진 조형적 특징을 표출하는 관능미를 중심으로 영화 「제 5원소」의 의상디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5원소」는 2200년대의 의상을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표현된 영화로 미래 의상에 나타난 장 폴 고티에의

관능미를 도출하기에 적합한 영상물이라 사료된다. 그의 디자인 속에 내제되어 있는 조형미 중 하나인 관능미가 영화 의상에서는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디자이너의 패션세계를 이해하며 앞으로 새로운 영역에 대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활발한 참여 모색의 발판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영화 「제 5원소」를 중심으로 한 장 폴 고티에의 관능미에 관한 연구로 선행연구 및 기타 문헌자료, 컬렉션지, 패션전문서적을 활용하여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의 배경 및 컬렉션에 나타난 관능미를 분석하였다. 또한 영화의상 분석을 위해 DVD 순간포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장인물 별 의상디자인 사진을 수집하였으며, 연구자료 설정을 위해 의상학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단 20인의 면접조사를 통한 13장의 사진을 선정하여 착장 변형, 야성, 노출의 관능미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II. 장 폴 고티에 (Jean Paul Gaultier)에 관한 고찰

1.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배경

1)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장 폴 고티에는 1952년 프랑스 파리 교외인 아르퀴유(Arcueil)에서 태어났다¹⁾. 양장점을 경영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고티에는 어렸을 때부터 소녀다운 취향을 좋아했고²⁾ 미학자인 할머니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여성의 화장품과 의상의 연출로 나타나는 변화에 흥미를 느꼈다. 이러한 가족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온 그는 패션 잡지 등을 통해 피에르 가르탱(Pierre Cardin)이나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과 같은 디자이너와 접하여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정식으로 수업을 받은 적이 없지만 수백장의 스케치 등을 하며 많은 시간을 꾸뛰르 하

¹Corresponding author ; Mi-Yeon Byun

Tel. ++82-17-614-6390, Fax. +82-2-3277-2852

E-mail : beaute210@hanmail.net

우스에서 보냈으며 자크 에스테렐(Jacques Esterel)과 장 파투(Jean Patou), 미셸 고메즈(Michael Gomez), 안젤로 탈라치(Angelo Tarlazzi) 등 수많은 프랑스 디자인 하우스에서 일하였다.

1997년 장 폴 고티에의 데뷔 컬렉션은 비록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일본 가시야마(Kashiyama) 그룹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고티에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현실화시키기를 원하며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완성되어지는 의상들을 통해 희열을 느낀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컬렉션에 발표된 의상 모두 그의 손을 직접 거치는 것으로 그의 말을 증명해보이고 있다.³⁾

또한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는 1994년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Designer)의 투표에서 가장 창의적인 디자이너(Most Creative Designer)로 뽑혔으며, 1995년 텍스타일 저널(Le Journal des Textiles)에서도 최고 인기 디자이너로 선정된 바 있는 역량 있는 디자이너로 평가 된다⁴⁾.

2)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활동

장 폴 고티에는 의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 라인과 광고, 그리고 경계를 두지 않는 폭넓은 예술 활동으로도 언제나 화제를 모아왔다.

그의 제품은 성인 남녀와 아동을 위한 기성복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와 오픈쿠뛰르 ‘고티에 파리(Gaultier Jeans)’, 그리고 가죽 제품과 아이웨어, 주얼리, 우산, 스카프와 타이, 슈즈, 향수 등을 다루는 액세서리 라인 등으로 전개되며 세계적인 매니아를 형성하고 있다⁵⁾.

그 중에서도 특히 향수는 장 폴 고티에 특유의 미의식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1993년 4월 첫 번째 향수인 ‘장 폴 고

티에’를 런칭 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뉴욕의 삭스 펍스 애비뉴(Saks Fifth Avenue)에 향수를 내 놓은 첫 주의 매출이 30만 달러에 이르는 경이적인 판매를 기록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마디 토르소를 이용한 장 폴 고티에의 향수는 베스트셀러의 아이টে็ม으로 자리 잡고 있다⁶⁾.

그의 향수는 그가 추구하는 관능미를 시각과 후각을 통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그의 향수병의 모티브인 여성의 바디 토르소는 그의 컬렉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디자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관능미의 심벌이자 그의 이미지로 자리잡혀왔다.

향수뿐만 아니라 1990년 세계 27개국을 돌면서 순회 공연한 팝가수 마돈나의 ‘블론드 앰비션 투어(Blond ambition tour)’의 콘 코르셋 또한 장 폴 고티에의 관능미적 요소를 더욱 부각시켜 주는 아이টে็ม이다.

마돈나는 팝(pop)계의 육감적인 가수로 항상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며, 페티쉬(fetish : 특정 사물 또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의상을 정당화 하고 정상화 하는 데에 어떤 가수보다 앞장서고 있는 가수이다⁷⁾. 이러한 가수 마돈나가 장 폴 고티에의 브래지어와 코르셋으로 디자인된 의상을 입어 극단적이고 장난기 섞인 유머감을 나타내며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들을 놀려주기 시작하였다. 장 폴 고티에는 남성미와 여성미가 공존하는 혼합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였으며 상대의 성으로만 생각했던 패션의 이미지를 동시에 느끼게 하였다. 허리에 벨트를 두르고 가터 벨트를 늘어뜨린 코르셋을 팬츠 위에 입고 각진 어깨의 재킷을 입음으로서 테일러드 수트의 힘과 코르셋이 주는 페미니티(femininity)의 혼합을 보여줌과 동시에 속옷의 걸옷화를 시도한 것이다⁸⁾.



<그림1> 2004년 Classic
(<http://www.galeriegaultier.com>)



<그림2> 마돈나의 콘 코르셋
(<http://www.madonna.com>)



<그림3>
2004 S/S
Paris Collection
(<http://www.firstview.co.kr>)



<그림4>
2004 S/S
Paris Collection
(<http://www.firstview.co.kr>)



<그림5>
2004 S/S
Paris Collection
(<http://www.firstview.co.kr>)

또한 그는 전위적인 실루엣만큼이나 눈에 띄는 디테일을 첨가하여 관능미를 부각시켰으며 블랙 콘 코르셋 위에 선을 강조한 의상을 디자인하여 바디를 강조한 극도의 조형미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2. 컬렉션에 나타난 관능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는 관능미를 그의 조형미의 기본으로 내재하고 있다. 패션 컬렉션 또한 그 만의 관능미를 표출하고 있으며, 그의 관능미는 다양한 요소로 의상에 적용되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컬렉션을 통해 나타난 장 폴 고티에의 관능미는 크게 세 가지-착장의 변혁 현상이 두드러지게 반영된 착장 변혁의 관능미, 가죽, 모피소재를 활용한 러프한 이미지의 야성적인 관능미, 속옷의 겉옷화 현상이 대두되며 나타난 노출의 관능미-로 구분지어 고찰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컬렉션의 분류는 패션 전문가 집단 20인의 면접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1) 착장 변혁의 관능미 : 속옷의 노출 및 이질적 요소의 결합

마돈나의 공연의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 폴 고티에는 속옷과 핑크적인 요소의 결합, 테일러드 수트와 속옷과의 결합 혹은 이질적인 디테일 등을 사용하여 관능미를 과시하였으며 이는 컬렉션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그림3>은 상의의 노출 없이 포멀 한 재킷과 가터벨트를 코디네이션하여 착장변혁의 관능미를 연출하였다. 그의 디자인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가죽 채찍을 디테일로 표현하여 고티에 풍의 관능미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림4>에서는 허리부분의 코르셋 효과를 재킷위에 표현하여 이질적인 느낌을 표출하였으며, 특히 하의에 다른 아이템 없이 브리프 하나만 코디네이션하여 다리 부분의 강조를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그림5>에서 또한 허리부분을 조이고 가슴부분을 풍만하게 강조하였다. 끈과 아이렛 등의 핑크적인 요소를 의상과 매치시켜 모노톤의 속옷 같은 의상에 강한 디테일을 장식한 이질적인 관능미를 보여주고 있다.

2) 야성의 관능미 : 가죽, 모피 소재 등 애니멀 프린트의 활용

섹슈얼의 이미지의 강조로 표현된 야성의 관능미는 가죽과 인조 피, 모피 등 소재 및 애니멀 패턴 등으로 관능미를 표출한다.

<그림6>에서 얼룩말 패턴으로 바디를 감싸 신체를 라인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손끝까지 감싸고 있는 얼룩말 패턴은 비대칭적으로 디자인되어 야생의 울동감과 성적인 개방감, 초원의 자유로움을 표현하였다.

<그림7>의 원시인과 같은 최소의 패치로 디자인된 상의와 <그림8>의 가죽 소재의 엠보 처리한 디자인 또한 그 특유의 소재로 인해 야성



<그림9>
2003 S/S
Paris Collection
(<http://www.apparelnews.co.kr>)



<그림10>
2005 S/S
Paris Collection
(<http://www.apparelnews.co.kr>)



<그림11>
2004 S/S
Paris Collection
(<http://www.firstview.co.kr>)

적인 관능미를 도출할 수 있다.

3) 노출의 관능미 :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대두, 노출의 미학 전개

착장변혁의 관능미에서 조금 더 속옷의 겉옷화가 진행된 이미지 상태이며 한 부위의 노출을 통한 색시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닌 드러냄의 미학을 통해 극소부위의 가림으로 관능미를 과시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9>, <그림10>에서 보듯이 언더웨어 컬렉션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의상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상들은 전자 기타와 롱부츠 등을 매치하여 여성스럽고 가냘픈 이미지의 노출이 아닌 강하고 남성스러운 매력을 여성의 몸을 통해 표출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11>에서와 같이 어린아이의 속옷을 착용한 듯한 의상과 과장된 모자의 코디네이션으로 여성의 노출을 화려하면서도 유희적으로 적용하여 이중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III. 영화 「제 5원소」에 나타난 관능미 연구

1. 영화 「제 5원소」의 배경

1) 영화의 특징

「제 5원소」는 1997년 룩 베송(Luc Besson)감독

의 공상과학 영화로 과학화에 따른 부정적인 이면을 인간이라는 희망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유토피아로 향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영화이다.

프랑스 고몽사가 제작하고 영국의 파인아트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으며 LA 디지털 도메인사에서 특수효과를 맡은 ‘헐리웃식 프랑스 영화’로 1997년 칸 영화제의 개막작품으로 선정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장 폴 고티에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으로 이 영화는 시각적 유희로 넘쳐나는 ‘성인동화’라 칭해지고 있다.

장 폴 고티에는 ‘영화는 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패션계에서 할 수 없는 방식의 실험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였으며 그의 말처럼 상상력을 총 동원해 만든 의상들은 영화의 시각적 환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¹⁰⁾.

2) 영화의 즐거움

1941년 한 노학자가 피라미드의 벽에서 지구의 미래를 바꿀 5원소의 비밀을 밝혀낸다. 그로부터 300년 후 괴행성의 침입에 의한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 5개의 원소를 필요로 하게 되며 예언에 의해 우주인이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찾아와 지구를 구해주길 기다린다. 괴행성은 점점 다가오고, 다급해진 사령부는 전직 요원인 코벤에게 4개의 돌을 찾아오도록 임무를 준다. 지구 멸망 시간이 1분도 채 안남은 상태로 피라미드



<그림12>
릴루의 의상①
(영화 「제5원소」DVD 캡처)



<그림13>
릴루의 의상②
(영화 「제5원소」DVD 캡처)



<그림14>
릴루의 의상②
(영화 「제5원소」DVD 캡처)

에 도착한 일행은 찾아낸 원소로 절대 악을 소멸시키며 영화가 끝난다.

2.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관능미

1) 릴루의 의상 : 착장 변혁의 관능미, 노출의 관능미

릴루는 제 5원소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결정적인 인물로 신비감을 자아내며 장 폴 고티에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착용하였다.

<그림12>의 립 조직의 화이트 니트 탑과 광택소재의 레깅스, 블랙벨트의 코디네이션은 관능미를 표출함과 동시에 활동성을 주며, 이와 함께 코디네이션 한 폴리우레탄 소재의 서스펜더 형 바디수트는 고티에의 이질적인 관능미인 착장변혁의 관능미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또한 <그림13>, <그림14>과 같이 최소한의 부분만 감싸는 봉대의상은 선을 주된 요소로 장 폴 고티에의 전위적인 작품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실루엣은 관능적이나 화이트 컬러의 설정으

로 주인공의 순수한 이미지를 발산시키고 있으며 노출의 관능미를 지향하고 있다.

2) 코벤 달라스의 의상 : 노출의 관능미

코벤 달라스는 전직요원 출신의 택시 운전사이며 릴루와 함께 스토리를 전개해가는 남자 주인공이다.

타이트한 실루엣과 활동성을 강조한 의상을 주로 착용하였으며 <그림15>과 같이 선명한 오렌지 컬러의 니트 탱크탑은 등 부분에 컷팅의 효과를 주어 남성이 주로 드러내지 않는 부위인 등을 노출시킴으로 인해 남성의 관능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제 5원소를 완성시키는 장면에서 또한 코벤 달라스는 <그림16>에서와 같이 그레이 컬러의 슬리브리스 탑을 입고 서스펜더를 착용하여 관능미를 과시하였으며 분리된 소매와 같은 얇은 니트를 팔에 둘러 활동성을 강조하였다.

3) 조르그의 의상 : 야성의 관능미

조르그는 악역의 이미지를 비주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캐릭터이다. 남성의 성기를 모티브로 한 기묘한 헤어스타일과 수영 및 독특한 패션은 그의 다중적이며 강한 성격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림17>과 같이 셔츠와 베



<그림15>
코벤 달라스의 의상①
(영화 「제5원소」 DVD 캡처)



<그림16>
코벤 달라스의 의상②
(영화 「제5원소」 DVD 캡처)



<그림17>
조르그의 의상①
(영화 「제5원소」 DVD 캡처)



<그림18>
조르그의 의상②
(영화 「제5원소」 DVD
캡처)

스트, 팬츠를 입은 모습은 남성 수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나 울 소재가 아닌 가죽소재의 사용으로 직선과 곡선의 혼용을 통해 남성적인 섹시한 관능미를 보여주고 있다.

하이네크라인과 안감의 레드가죽 역시 강렬한 느

낌을 더하고 있으며 신비로운 컬러의 사용으로 악역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18>과 같이 빛의 각도에 따라 오렌지 또는 그린 등으로 다르게 보이는 오묘한 컬러의 베스트는 특수소재를 활용한 야성적인 관능미를 표출하고 있다.

4) 루비도트와 친구들의 의상 : 야성의 관능미



<그림20> 루비도트와 친구들의 의상 ②
(영화 「제5원소」 DVD 캡처)

영화 DJ로 등장하는 루비도트는 남자의 몸으로 여성스러운 의상과 액세서리를 연출하며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재미있는 극의 연출을 돕는다.

<그림19>, <그림20>에서의 레오파트 패턴의 점프 수트는 바디라인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으며 블랙가죽과 모피 등으로 매치시켜 소재의 야성미를 강조한 야성의 관능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허문 루비도트의 의상은 장 폴 고티에 특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으로 컬렉션에서도 이러한 패션 이미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5) 기타 의상 : 착장 변혁의 관능미, 노출의 관능미



<그림21> 여승무원들의 의상
(영화 「제5원소」 DVD 캡처)



<그림22> 기타 의상①
(영화 「제5원소」 DVD 캡처)



<그림23> 기타 의상②
(영화 「제5원소」 DVD 캡처)

주인공뿐만 아니라 기타 등장인물에게서도 장 폴 고티에만의 독특한 관능미가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1>의 여승무원들의 의상에서는 브레이어를 응용한 속옷의 걸옷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의 관능부위인 가슴과 허리라인을 노출시켜 노출의 관능미 또한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림22>, <그림23>에서와 같이 파라다이스에서 콘서트를 연 외국가수의 모습에서 중세풍과 동양풍이 결합되어 다양한 소재를 찾아 볼 수 있으며 남성복의 레이스 착용, 관능부위의 슬래쉬 효과 등 기타 인물들에서도 관능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장 폴 고티에의 관능미 평가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는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디자인에서 뿐만 아니라 프로모션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능미를 표출하고 있으며, 그가 담당한 영화 「제 5원소」의상에서 또한 다음과 같은 디자이너 특유의 관능미적 요소를 찾아 낼 수 있었다.



첫째, 착장 변혁의 관능미를 통해 속옷의 노출 및 이질적 요소의 결합을 확인 할 수 있다. 컬렉션에서는 테일러드 수트와 속옷과의 코디네이션 등 이질적인 디테일을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었으며, 영화 의상에서는 가터벨트를 형상화한 디테일의 바디 수트를 통해 표출하고 있었다.





둘째, 야성의 관능미를 통해 가죽, 모피 소재 등 애니멀 프린트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다. 컬렉션에서는 인체 실루엣을 시각적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야생의 울동감과 성적인 개방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영화 의상에서는 점프 수트를 활용하여 바디라인을 그대로 드러내 주어 야성성을 통한 중성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노출의 관능미를 통해 속옷의 겹옷화 현상 및 노출의 미학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컬렉션에서는 브래지어와 브리프를 메인 아이템으로 설정하고 팬츠를 스타킹과 같은 서브 아이템으로 구성하는 착장변혁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화 의상에서는 관능부위를 그대로 드러내어 속옷과 같은 착시현상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장 폴 고티에의 관능미 비교

장 폴 고티에의 관능미	컬렉션 이미지	영화 이미지
착장 변혁의 관능미 - 속옷의 노출 및 이질적 요소의 결합		

야성의 관능미 - 가죽, 모피 소재 등 애니멀 프린트의 활용		
노출의 관능미 - 속옷의 겹옷화 노출의 미학 전개		

이를 통해 영화 「제 5원소」에 나타난 관능미는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 특유의 내재된 관능미적 요소가 적절히 표출된 영화이며, 이를 통해서 볼 때 그가 추구하는 다른 디자인에서도 신체를 모티브로 한 관능적 요소가 내재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V. 결론

장 폴 고티에는 ‘우리 시대의 패션에 터부란 없다. 속옷의 아름다움을 감추어 두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라고 말하였다¹¹⁾. 이 말 속에서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표상 이미지가 관능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지금까지 전개해 왔던 작품세계는 여성의 몸에 착안을 하여 고티에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영화 「제 5원소」를 중심으로 한 장 폴 고티에의 관능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장 폴 고티에 컬렉션 분석 결과 그가 추구하는 관능미는 크게 세 가지-착장 변혁의 관능미, 야성의 관능미, 노출의 관능미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화 의상 분석 결과 영화 「제 5원소」는 장 폴 고티에가 직접 디자인하여 시각적인 유희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준 영화로 그의 작품세계가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등장인물별 의상을 분석한 결과 킬루의 의상에서는 착장변혁과 노출의 관능미가, 코벤달라스의 의상에서는 노출의 관능미, 조르그와 루비도트의 의상에서는 야성의 관능미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 폴 고티에의 영화 의상디자인을 비롯하여 다방면에서의 활동은 그의 독창적인 재능을 선보이며 평가 받고 있는 최고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패션 디자이너의 활동이 국내 시장에서도 적용되어 국내 디자이너의 영화 의상디자인 진출 등의 활발한 활동의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장 폴 고티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이기에 앞으로 그의 디자인 추이를 계속 연구하여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디자인 모티브 변화에 관한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예담, p.95.

- 8) 김희선 (2004). Op. cit., p.36.
- 9) 한겨레신문. 1997년 7월 22일. 제5원소-미래를 나타내는 시각효과.
- 10) 김희선 (2004). Op. cit., p.90.
- 11) 임소영 (2003). Op. cit., p.67.
- 12) 김정옥 (1975). *영화예술론*. 동화출판공사.
- 13) 립 배송, 김재민 역 (1997). *제 5원소*. 큰나무.
- 14) 최은진 (2002). 장 폴 고티에의 작품이 현대패션에 준 영향에 관한 연구 -아방가르드와 표현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 고 문 헌

- 1) Stegemeyer, A. (1996). *Who's in Fashion*. Fairchild Publications, p.87.
- 2) 이순홍 (2002).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교문사, p.276.
- 3) 세계 유명 디자이너의 생애와 작품세계1 (2000). *세계 유명 디자이너의 생애와 작품세계 1*. 라사라패션정보, p.186.
- 4) Mcdowell, C. (2000). *Jean Paul Gaultier*. Viking Studio, p.118.
- 5) 김희선 (2004). 장 폴 고티에의 영화의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
- 6) 임소영 (2003). 장 폴 고티에 패션 디자인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 7) 앤드류 터커, 김은옥 역 (2003). *패션의 유희*.